

종합·해설

비례대표 30% 국민경선으로 뽑아

민주 지지도, 2년만에 한나라 추월

민주당 '개혁특위안' 들여다보니

영남권 4명·청년 2명 선출 의무화도 대선 후보 경선 '국민참여 비율 70%'

4·27 재보선 승리를 계기로 민주당의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손학규 대표가 인적쇄신론을 주장하고 나섰으며 박지원 원내대표는 '잔인한 결단'을 거론하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센 개혁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개혁특위가 내년 총선 공천은 물론 대선 후보 경선 방법 등을 담은 개혁안을 지난 8일 저녁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당은 개혁특위의 안을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최종적으로 당내 개혁안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역구 공천=전략공천을 30% 이내로 하고 경선은 공직위(공직선거 후보자선출심사위원회)의 1~2차 심사를 통해 2~4명으로 압축해 실시한다. 경선은 슈퍼스타 K 방식과 당원경선, 국민경선 등을 병행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슈퍼스타 K 방식은 광역별로 200명의 국민배심원단(전문가 50%+일반국민 50%)을 구성, 무작위로 선정된 6명의 국민 배심원단과 3회의 토론회를 거쳐 점수를 매긴다.

국민배심원단은 토론회마다 달리 구성되고 최고와 최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산출되며 전체 경선 점수에 3

분의 1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선호투표제를 바탕으로 국민참여선거인단 경선도 병행 실시된다. 당원 경선과 국민 경선이 각각 실시되며 각각 전체 경선 점수의 3분의 1을 반영한다.

◇비례대표 공천=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중임을 금지하고 당선 안정권의 3배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30%는 국민경선을 통해 선출하고, 40%는 정책협약 선거인단 투표로, 30%는 중앙위원회 가부 투표로 결정한다는 안을



불기 2555년 부처님오신날인 10일 서울 종로구 견지도 조계사에서 법오식 뒤 열린 다과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스님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자승스님,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손학규 민주당 대표, 황우여 한나라당 신임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제시했다. 또한, 모든 비례대표 선출 방법에 슈퍼스타 K 방식을 도입, 결과에 30%를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경선(안)으로는 청년 남녀 1명씩을 비례대표로 보장하고 3배수로 추천된 후보자 간 전국 단위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한다. 또한, 취약지역임을 고려, 4명의 영남 인사를 비례대표로 선출한다. 정책협약 비례대표는 정책협약위원회 산하 3개 분야별로 정책당원과 해당 분야 소속 회원 선거인단을 1대 2로 구성해 선출한다.

중앙위원회에서는 외교, 안보, 과학 등 전문성을 요하거나 당 차원에서 필요한 전문가, 사무처 및 정무직 당직자에 대해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당선 안정권에 남녀 각 1명씩을, 당선 가능권에 남녀 1명씩을 배정할 계획이다.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전 당원 투표를 통해 선출하며 비율은 중앙 대의원(10%), 당비 납부 당원(30%), 일반당원(60%) 등으로 구성한다. 투표 자격은 6개월 전 입당자, 당비 납부 당원은 6개월 이상 당비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한다. 투표 방법은 모바일 또는 직접 투표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대통령 후보 경선=국민참여경선을 통해 실시하고 당비납부당원 10%, 일반 당원 20%, 국민 70% 비율을 도입한다. 투표 자격은 당원과 국민 모두 신청하면 가능하고 선호투표제를 통해 모바일 또는 직접 투표를 실시한다. 다만 당원투표는 광역시도별 인구, 당원, 최근 선거투표 등을 반영해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34.5% 대 31.2% ... 대선 후보 지지율 박근혜 31.3%, 손학규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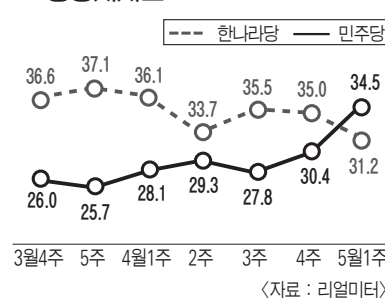
'리얼미터' 3000명 조사

4·27 재보선 이후 상승세를 탄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2년 만에 한나라당을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간 정례 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4.5%를 기록, 31.2%에 그친 한나라당을 3.3%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전 주 대비 4.1%포인트 상승했지만 한나라당은 3.8%포인트 떨어졌다. 그동안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한나라당을 추월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다음달인 2009년 6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추세가 확인될지

정당지지도



주목된다.

이러 국민참여당(4.5%), 민주노동당(4.3%), 자유선진당(2.4%), 진보신당(1.3%)이 뒤를 이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27 재보선 이후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전 주 대비 4.1%포인트 하락한 27.3%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20%대로 떨어진 것은 역시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처음이다.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31.3%로 1위를 지켰고, 이어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전주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14.1%로 2위를 지켰다.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는 12.5%로 2.7%포인트 반등하면서 손 대표를 오차범위 내로 다시 따라붙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2년 만에 정당 지지율에서 한나라당을 앞선 것에 크게 고무되긴 하지만, 앞으로 당내 개혁 등을 통해 진정한 수권정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를 포함, 전화번호 미등록 가구에 임의로 전화를 거는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포인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념 들어 당내 투쟁 시도 말라”

손학규계 김부겸 의원 당에 쓴소리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10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보수를 이기기 위해 진보와 중도를 묶어 권력을 쥘지려는 시점에서 누가 더 진보적인가로 경쟁하는 건 뒷북치기 아니면 알뜰한 영합”이라며 “이념을 들어 경쟁자를 때리고 정체를 문운하며 당내 투쟁을 시도하는 일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계의 김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 과정에서 나타난 손 대표의 리더십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며 따른 반발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모든 정당은 기본 입장 혹은 이념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유지되지만 전쟁, 혁명, 대중항 같은 역사적 사건이 없는 한 솔직히 거역하기”라며 “오호러 이념은 정치투쟁을

하는 데 흔히 이용된다. 그것도 외부보다는 내부자를 상대로 한 투쟁에 많이 쓰인다”고 지적했다. 최근 손 대표의 노선을 두고 비판했던 당내 인사들을 겨냥한 것이다.

김 의원은 또 “어차피 자유주의 정당의 성격을 버릴 수 없는 민주당 내부 구성원 간의 이념 차이라고 해봤자 내가 보기엔 거기서 거기”라며 “순전을 양보해 진보와 연대하고, 분당에 당 대표를 내보내 중도에게 다가가는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지 않고, 만날 노선 시비만 하면 우리가 리 멀어져가는 거나”고 되물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여 의원 142명 '완전국민경선제' 공동 발의

선거일전 40일 이후 첫 토요일 모든 정당 당내 경선도

한나라당 의원 142명은 9일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주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당 공천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해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고, 선거일 전 40일 이후 첫 토요일에 완전국민경선을 신청한 모든 정당이 동시에 당내경선을 하도록 했다.

경선 참여를 원하는 유권자는 누구나 투표소를 방문해 원하는 정당의 경선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선사무

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이 개정안에는 한나라당 전체의원 172명 중 82.6%가 서명해 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줬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10일 “완전국민경선제는 기득권을 버리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공천제도 개혁의 취지에 가장 잘 부합하는 이상적인 제도도 정당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친이계-소장파, 비대위 구성 대치 속

한나라 오늘 의총 '벼랑끝 대결' 주목

한나라당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소장파와 친이(친이명박계) 주류의원들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의원총회에서 한 판의 대결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는 4·27 재보선 패배 후 주류와 비주류의 세(勢)의 판도가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쇠신 동력을 이어가려는 소장파에 대해 친이계 주류가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쇄신을 외치고 있는 소장파는 당 최고위원회가 지난주 사퇴 직전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지

명, 당대표 권한을 대행토록 한 결정을 거부하고 있다. 나아가 황우여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대위 재구성'을 주장하며 전체 당원 투표제 관철 등 전당 대회 규칙(통)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소장파로 분류되는 '새로운 한나라'의 공들인 구상한 의원은 10일 “이번 싸움은 당을 쇠신하려는 세력과 현재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이 주류는 소장파의 '비대위 재구성' 요구에 반발하며 의총에서 강도높은 반격을 가할 태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변호선 신임대표 '심대평·이인제와 물밑 교감'

'총청권 통합' 가을 이전 현실화

자유선진당 변호선 신임대표는 10일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 무소속 이인제 의원 등과의 합당 및 연대에 대해 “물밑으로 교감이 오가고 있다”며 “(총청권 통합) 늦어도 가을 이전에는 나타날 것이며 그 안에도 전광석화처럼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변 대표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제가 (두 분에게) 진정한 의미의 정당화를 하는데

손을 잡자고 하면 흔쾌히 같이 잡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대표는 한나라당의 선진당 흡수 통합론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희망사항”이라며 “선진당은 통합 대상이 아니다. 독자노선을 끝까지 고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미래희망연대 등과의 연대 방식과 관련, “정책이 같고 정치적 신념이 같다면 보수 대연합을 할

수 있지만, 후보를 같이하고 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선거 연대론을 부정했다.

한편, 비주류 측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선진당은 이회창 인 지배 체제로 그가 물러나도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며 “총청권 통합에 지지할지 물어내지 못한다면 연명에 급급할 게 아니라 창조적 파괴도 결연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전 대표 노선과 정치방식에 맹목, 목인함 그룹이 여전히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며 변 신임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과 당 지도부의 일괄 퇴진을 요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농업인 구합니다!

도시근교 농장에 숙식을 하며 농사일을 할 분을 찾습니다!

- 모집인원 0명
- 근무일수 주 1회 휴무(평일)
- 근무조건
- 숙식가능자, 농사일 유경험자 우대
- 경운기 작동 가능자
- 근무장소 전남 화순군 앵남리
- 급여 면접 후 결정
- 접수방법 팩스접수 / 방문접수
- 복리후생 4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 접수기간 채용시까지
- 제출서류 이력서, 주민등본 1통
- 연락처 062)651-8871
- 010-3763-7335
- FAX 062)652-8866

서광타워(주)

남성 성기능강화제



본제품은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계의 도움이 된다.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둔구어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류큐나프리오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섭취방법 및 제품특징

- 평소에 발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부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전 약 2-3시간전에 1정을 섭취하면 1-5일까지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 발기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은 1일 4정을 3-7일 정도를 연속으로 섭취하시면 발기가 됩니다.

성명이 필요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문의 전화 010-7770-8138 주문즉시택배 무료배송 농협 302-0136-6325-61 권옥연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직항상이나 성직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성 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한약은 주재료인 참스름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 참스름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90204-중-473호